

資料

「歐洲通貨引上論과 國際經濟上の意義」

安

霖

(目 次)

- (一) 論爭의所在와背景
- (二) 國聯歐洲經濟委員會의報告
- (三) 國際通貨基金의報告
- (四) 國際經濟上の意義
- (가) 論爭의由緣
- (나) 換管理와換時勢操作의原則
- (다) 問題의將來

—— 부렛톤·웃즈機構의危機意識에關聯하여 ——

(一) 論爭의 所在와 背景

一九五一年五月二十七日 偶然하게도 同一한 날에 「國聯歐洲經濟委員會」(EO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과 그 年次報告書의 附錄에서 「歐洲通貨引上의 勸誘」를 發表하는가 하면 「國際通貨基金」(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第二次外換制限年報」을 公表하였는데 國聯經濟社會理事會에 所屬하는 이有力한 두개의 國際經濟機關이 五一年度の 外換制限에 關한 問題에 있어서 다음과같이 根本的으로 見解를 달리하여 論爭하고 있다는 點은 國際經濟上 매우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먼저 論爭點을 크게 要略하여본다면 「基金」은 外換率의 問題와 外換管理의 問題를 區別하여 世界各國通貨의 對非貨平價를 「基金」約定에따라서 一定한 固定率에 定着시켜놓고 換管理만을 緩和하라고 주장하며 對하여 이와는反對로 「歐洲經濟委員會」는 換管理를 既成事實로서 前提하고 그 管理와 國內의 其他諸統制의 前提下에서 이統制化된 經濟의 實勢에 副應되는 屈伸的換率을 隨時로 造成하는 것이다. 論爭의 究竟에있어서 「基金」은 美國中心의 「그로-발」한 觀點에 있고 있는 반면 對하여 「歐洲經濟委員會」는 國民經濟的立場을 固執하고있었던 것이다. 問題를 歐洲通貨引上에만 局限하여 考察한다면 「基金」은 國際主義的立場에서 그의 固定換率堅持의 線에따라서 通貨引上에 反對하는 同時에 나아가서는 換管理의 緩和乃至 撤廢까지 主張하고있음에 反하여 「歐洲經濟委員會」는 歐洲諸國의 立場을 擁護하여 換管理의 前提下에서 通貨引上을 慈惠하고있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서 紹介하려는 「歐洲通貨引上論」은 一九五一年前半期에 걸쳐서 英國및歐洲에서 많은 同調者를 贊同했기는하나 同年六月二三日の 「마리크」의 韓國動亂停戰提唱以來로 始作된 世界的景氣後退

와 軍擴不況으로 因하여 通貨事情이 逆轉되어 同年九月에는 磅貨와 法貨의 時勢가 急落한 나머지 平價切下說까지 再擡頭됨에 이르러 通貨引上은 커녕 도리어 通貨切下의 危機에 빠졌는 것이다。結局 引上도 切下도 實現되지 못한 채로 一九五二年中을 通하여 歐洲의 諸通貨는 軟化의 過程을 保合하면서 겨우 維持되어 왔는 것이다。

「歐洲通貨引上論」은 軍擴空氣의 一定한 段階에 있어서의 西歐의 利益을 主張하는 特殊問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換管理의 強化、換率의 屈伸性이라는 前提下에서 提起된 問題인 만큼 國際經濟上の 意義를 忽視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通貨引上問題를 圍繞하고 「基金」과 「歐洲經濟委員會」가 問題의 對決을 爲하여 論爭하고 있다는 것은 그 內容如何에 따라서는 深大한 意味를 갖는 것이라고 斷言할 수 있다。

그러면 提起된 論爭의 所在과 背景을 概覽하여 본 다음에 「基金」과 「歐洲經濟委員會」의 兩報告를 紹介하고 끝으로 國際經濟上の 意義를 檢討하여 볼 것이다。

다음에 서는 爲先 本論爭의 所在과 背景의 理解를 도울기 爲하여 韓國動亂以後 一九五一年前半期에 이르기까지에 造成된 國際經濟의 質的轉換의 樣相을 窺見하기로 하자。

韓國動亂을 契機로 한 進戰時經濟의 急角度の 移行은 自由世界經濟의 質的轉換을 招來한 事實은 多角度로 檢討되어 왔다。 그러한 過程의 諸現象의 始發로서는 爲先 美國의 戰略基礎物資의 急速度の 買入、貯藏行爲로 因한 世界物價水準의 上昇現象을 指摘할 수 있으며 이結果로서 各國의 輸入原料品의 壓倒的高價는 國內一般物價水準에 作用하여 인플레이션을 誘發시켰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世界的인 原料와 製品의 不足現象을 들 수 있다。世界市場의 「파이야이즈·마일」(二次大戰後의 世界市場은 「셀프·파이·셀」였었는데 一九四九年九月의 磅貨切下를 契機로 하여 그것은 「파이야이즈·마일」로 轉

換되었으며 이市場關係는 大體로 韓國動亂前 卽 一九五〇年前半期까지 維持되었다(로부터 1월 1일
 마 1월 1일에)의 再移行은 輸入優先이라는 國民經濟的欲求를 刺戟하고 있었다. 이러한 現象은 通貨의 過
 低評價가 有利하였든 輸出促進時代로부터 過高評價를 有利로 하는 輸入優先時代에로의 來來를 意味한다.
 一九四九年九月의 磅貨切下를 契機로 한 三十六個國의 通貨切下措置의 目的은 輸出促進, 輸入減縮策
 에 依한 國際收支의 改善에 있었으나 그反面에 있어서 貿易條件은 犧牲되어왔다. 왜냐하면 通貨切下
 는 國內商品一單位의 外國商品과의 交換量의 減少를 招來하기 때문이다. 再言하면 一定한 輸入量을 繼
 續적으로 維持하기爲하여서는 從前보다 더 많은 輸出量을 確保하여야 한다는 貿易條件(terms of trade)
 의 惡化 卽 商品의 交換比率(換金率)의 低下를 隨伴하였다. 通貨切下는 輸出品의 非貨表示價
 格을 低落시키므로 輸出促進策으로서는 有効하였으나 그反面 輸入品의 非貨價格을 引上시키므로 本
 論爭의 當時와 같이 物資獲得戰時代에는 明白히 不利하였다. 歐洲各國은 이러한 狀態를 留意하면서 通
 貨引上措置로써 惡化되어온 貿易條件을 改善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通貨引上問題提起의 起點이라 하겠다.
 英國에 關하여 具體的一例을 들어보자 英國의 貿易條件 卽 商品의 交換比率 卽 輸出價格과 輸入
 價格의 比率은 磅貨切下措置와 軍需增大에 따르는 國際商品時勢의 暴騰에 依한 輸入價格의 先行的
 暴騰으로 因하여 惡化의 過程을 밟고 있었다. 例를 들면 一九五〇年의 英國의 貿易은 四九年의 同
 一量의 輸入을 하고 赤字도 四九年과 같이 一億五千三百萬磅에 阻止시킨 수는 있었으나 이年 爲
 하여서는 四九年보다도 量에 있어서 一七%나 많은 輸出을 確保하여야 되었다. 貿易條件이 惡化하였기
 때문에 二億七千五百萬磅에 相當하는 이輸出을 말하자면 無價로 하였다고도 볼수 있는데 本論爭의
 當時 五一年度에는 이것이 더욱 增加하여 五億磅에 達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와같이 貿易條件의
 惡化는 英國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歐洲諸國(原料品을 輸入하고 製造品을 輸出하는 工業國家)에 共

通된 現象임을 注視하여야 할 것이다。이 貿易條件의 惡化가 國際收支의 逆調을 促進하였고 이에 다시 再軍備下의 인플레이의 暴進은 通貨價値를 低落시키고 財政의 危機를 釀成하였던 것이다。(勿論 이 反面에 原料品輸出國의 貿易條件은 一般的으로 好轉되었고 따라서 그 國際收支는 一九五一年後半期부터의 軍擴不況이 到來하기까지는 良好한 狀態에 있어서 所謂 間歇的인 軍擴부의 餘澤을 입은 事實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貿易條件의 惡化를表示하는 西諸國

	英 國		西 德		日 本		荷 蘭		和 國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輸 入
1948年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949 "	103	101	—	—	100	95	93	101	94	96
1950 "	108	115	100	100	90	99	100	114	98	108
1951 "	1950年=100									
1 "	107	119	106	112	104	116		106	106	116
2 "	109	125	109	114	112	114	127	131	108	124
3 "	112	128	113	122	117	120			108	127
4 "	115	136	115	124	116	125			115	130
5 "	118	142	120	129	118	124	153	146	116	136
6 "	120	143	121	136	121	122			115	133

(註) 資料 Ⅱ 國聯統計月報에서 作成한 韓銀調查月報 第四六號(一九五二年五月號)、統一九一 에 依據함.

以上은 大體로 歐洲通貨引上論議를 圍繞한 論爭의 所在과 背景에 關한 一般的說明이다. 要略컨대 I.O.E.는 前 韓半島の 같이 通貨의 過低評價에 依한 輸出促進時代로부터 戰略物資獲得의 必要上 過高評價에 依한 輸入優先時代가 到來하자마자 通貨引上에 依하여 貿易條件改善、輸入價格의 引下)을 招致하고 輸入原料品價의 高騰에 基因되는 「코스트·인플레이」의 外來的原因을 遮斷하므로써 國際收支와 財政의 危機를 收拾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國內均衡」優先의 經濟的國民主義의 再確認인 것이다. 實로 그 때문에 軍擴經濟가 要求하는 國內의 諸經濟統制策의 一環으로서 外換管理를 既定的前提條件으로 하여 外來의 物價高、所得高等의 惡影響의 國內波及을 遮斷할 目的으로 換率의 屈伸性을 要求하는 가운데서 「歐洲通貨引上을 懲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美國의 利害를 反映하는 I.M.F.는 正反對의 角度에서 換管理의 緩和乃至 撤廢와 固定換率을 主張하여 不辭한다. 그理由는 무엇일까.

周知하는 바와 같이 「부렛튼·웃즈機構」(國際通貨基金과 國際復興開發銀行)은 「國際貿易憲章」에 依하여 設立이 約束된 「國際貿易機構」와 더불어 二次大戰後에 있어서 多角의 自由通商體系의 回復과 諸國의 完全雇傭의 達成을 至上目標로 하는 國際經濟再建의 二大支柱였는 것이다. 「基金」은 國際收支의 短期的不足을 補充하기 爲한 短期融資、國際換時勢의 安定、및 通貨·換制限의 禁止를 그機能으로 하고 「國際復興開發銀行」은 戰災復興과 經濟開發을 爲한 長期融資、그리고 「國際貿易機構」는 通商貿易의 自由化를 擔當할 布石이었다 (國際貿易憲章에 依하여 一九四九年中에 設立된 豫定이었던 國際貿易機構는 尙今 實現되지 못하고 있다). 其中 「國際貿易憲章」은 現實의 支配力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國際換·金融에 對한 拘束力을 通하여 國際經濟의 方向을 決定하는 機關은 「基金」뿐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基金」이나 「國際復興開發銀行」은 現實적으로 金 및 非貨資金이 最大의 基礎가 되므로

美國의支配下에 있는것이다。事實에 있어서 「國際復興開發銀行」(「基金」에 加盟하면 自動的으로 同行의 一員이 된)의 社債는 全的으로 發行에 依存하여 왔고 五一年度에 처음으로 英國과 瑞西에서 若干 募集하였다는것은 道間의 事情을 實證하고 있는것이다。

IMF의 創設에際하여 加盟國의 外換制限廢止를 要求한 美國案에 「加盟國은 差別的通貨措置: 多角數外換時勢의 適用을 採用하여서는안된다」고 成文化되고 있다。IMF가 要求하는 「外換制限의 廢止」, 「通貨의自由交換性」(free convertibility of currencies)과 「自由支拂」, 「多角의自由通商」및 「機會均等」等등의 論議는 現實의 過程에 있어서는 말라의 支配를 強固히하며 美國의 商品및資本의 輸出路의 擴大를 保障하는 結果가 되었다。

이에 對하여 西歐諸國이 弗貨의 慢性的不足이라는 逆境에 있어서 國際收支의 維持와 歐洲市場의 防衛를 爲하여 美國의 對外經濟政策에 依하여 容易하게 浸透될수 있는 弗貨의 市場支配를 防禦하자는것은 歐洲諸國의 國民經濟的基本課題임을 首肯하여야 할것이다。

인제기 부렛튼·웃즈機構의 創設時의 豫備提案에 있어서 美國對歐洲의 이對立은 美國의 「화이트案」과 英國의 「케인즈案」으로서 各各 表明되었다는 事實은 極히 敎訓的인것이다。화이트案인 「聯合國및 提拂國換安定基金案」(Proposals for the United and Associated Nations Stabilization Fund)의 通貨貿易의 國家的統制를 認定하지 않으며 多角의無差別的自由通商體制와 따라서 自由支拂및自由通商體系를主張하며 金換本位에 立脚하고 있음에 反하여 케인즈起草의 「國際清算同盟案」(Proposals for the International Clearing Union)은 國家的統制를 容認하며 오히려 이것을 前提로 하여 現金에 依持하지않고 國際的으로 集中決濟를하는 國際決濟機關을 創設하자 것이며 通貨政策上으로는 可能한限 金의 役割을 排除乃至 制限하려고하는 國際的인 管理通貨主義에 立脚하였다는것은 將來에도 意義있게 國

際經濟의 方向을 指示하여 주는 것이다.

結局 이美英間의 固執은 美國이 對英三七億五千萬弗의 借款을 提供한다는 條件은 무엇으로써 英國은 敗退되고 美國의 勝利에 있어서 부렛튼·웃츠協定이 成立되었던 것이다. 英國은 다만 戰後의 過渡期間中 諸制限措置를 保留한다는 例外條項을 插入하므로써 겨우 妥協하였다. IMF規約에 따르면 制限措置를 認定하는 過渡期間은 五個年으로 되어 있으므로 一九五二年三月末以降 換管理를 緩和乃至 廢止할것을 加盟諸國과의 協議下에서 決定할것이라는 規定이 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對立의 現實의 過程은 如前히 未解決狀態에 있다. 오히려 軍擴不況下의 現段階에 있어서 거이 모든 國家는 外換制限을 緩和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強化하고 物數外換時勢의 適用과 貿易統制措置를 日益 擴大하고 있는 現狀이다. 이具體的事實은 本文의 末尾에서 說明할 것이다. 實로 二次大戰後에 決定화된 世界單一市場의 崩壞를 背景으로 하여 世界獨占資本主義의 抗爭은 美對英、美對歐洲、先進國對後進國 및 國際主義對國民主義等の 形式에서 激成되면서 있다.

여기에서 紹介하려고 하는 歐洲通貨引上論議에 關한 IMF對IMF의 意見對立은 勿論 各其의 立論의 前提로 된 國際經濟의 當時의 事實認識의 差違에서 오는 것이기는 하나 그背後에는 根本的으로 以上과 같은 國際經濟의 未解決點이 解決을 促求하면서 恒時 顯在할 可能性이 濃厚하다는 客觀的事實을 銘記하여야 될 것이다. IMF對IMF의 論爭點의 直接的對象은 歐洲通貨引上의 是非에 關한 特殊問題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것이 歐洲諸國通貨의 對美弗平價의 새로운 評價問題를 包含하고 있으므로 그自體로서도 世界的問題를 惹起할것은 必至의 事理이다. 結局 歐洲通貨는 引上되지 않았으므로 現象的問題는 其以上 提起되지 않았다. 그러나 今後에도 그와 類似한 問題는 언제 어데서든지 惹起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實然論한다면 歐洲通貨引上論이라는 것도 戰後八個年間に 걸쳐서 到處에서 現

象化된 부엌은·웃즈體制의 危機意識의 一齣에 不過한 것이다.

筆者는 國際經濟의 그러한 一大盲點의 理解에 資하고져 여기에 兩報告의 權威性을 信賴하기 때문에 그影響力에 對한 一定한 考慮下에 逼真한 論爭點을 中心으로하여 敢히 要點만을 紹介하고 말므로 부엌은·웃즈體制의 危機意識에 關聯하여 本論爭의 國際經濟上의 意義를 抽出하면서 問題의 將來에 關하여 若干의 考察을 試圖하였다.

(二) 國聯歐洲經濟委員會(ECE)의 報告

EOE의 報告는 韓國動亂以後에 釀成된 歐洲의 全般的인 價格上昇과 인플레이壓力의 對策으로부터 始作된다. 바로 EOE가 問題視하고 있는 價格上昇이라는 것은 原料價格과 製品價格의 膨脹率의 懸隔, 卽 原料價對製品價의 缺狀價格差를 말한다. 卽 輸入原料의 價格高騰이 輸出製品의 價格高騰보다 훨씬 先行하고 있다는 點이다. 原料價의 上昇率은 製品價의 上昇率을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五〇年中に 一八〇%나 膨脹하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歐洲의 인플레이壓力은 外來的原因에 基因한다고 論하고 있다. 그外來的이라는 意味는 輸入原料의 壓倒的인 價格高騰에 있다는 것이다. (勿論 歐洲의 輸出品에 對한 海外需要度에서 오는 인플레이原因도 있으나 이것은 至極히 微微하다고 判定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輸入原料의 價格高騰率이 輸出製品의 價格上昇率보다 훨씬 높으며 先行하고 있다는 것은 歐洲의 貿易條件의 惡化를 意味한다. 卽 同一量의 輸入을 繼續적으로 維持하기爲하여서는 從前보다도 더 많은 輸出量을 確保하여야 된다는 簡單한 歸結을 이기 때문이다. 이解決策의 하나로서는 輸出物價가 輸入物價의 上騰에 比例하여 膨脹한다면 貿易條件은 改善의 方向으로 好轉될 것이다. 그러나 이境遇에도 歐洲各國間의 輸出物價上昇에 依한 輸出所得增殖은 循環적으로 國內인플레이를 惹起시

진다. 그러므로單純히 輸出物價引上에 依한 貿易條件改善策만으로써는 解決할 道理가 없다는 것이
다.

同時에 EOE는 하나의 異論을 豫想하고 自己所論을 다음과 같이 辨明하고 있다. 卽 世界的 基礎
原料價格은 一九五一年前半期에 들어서자 保合 乃至 微落의 趨勢에 있으므로 原料價對製品價의 「세
1」를 그렇게 問題視할 必要가 있는나는 抗議에 對한 回答이다. 또한 輸入原料의 高價는 製品의
生産코스트上昇을 招來하며 그리고 製品需要도 增大하며인만큼 原料價와 製品價의 不等價 (disparity)
狀態는 漸次로 是正되어가지않겠는가... 이와같은 抗議는 EOE도 認定하는바이다. 그러나 EOE는
그러한 是正過程은 곧 價格인플레이가 原料品價格으로부터 製品價格에 波及되어가는 過程이므로 通貨
引上으로써 이波及過程을 中斷하여야한다는 것이다.

EOE는 이에 窮極의오로 通貨引上措牌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效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
다.

(a) 自國通貨基準의 物價가 低落하여 인플레이收束에도 有効하다는 것이다.

一 例를 들면 一磅對二・八〇弗의 境遇의 美國商品二八弗에 對한 英國輸入品價格은 一〇磅이지만 一
磅對四弗로 引上한다면 同商品의 英國의 輸入價格은 七磅가 된다. 이렇게 輸入品價低落은 다시 國內
物價低落에 作用하여 不景氣的影響을 미칠 것이다.

(b) 貿易條件이 改善된다는 것이다. 通貨를 引上하면 國內商品一單位에 對한 外國商品과의 交換量
이 增加하므로 貿易條件이 改善될것은 明白하다. 一九四九年九月의 通貨의 平價切下로 因하여 商品
一單位의 對外交換量의 減少의 結果로서 貿易條件이 惡化된 經緯의 反對를 가지는 것이다.

(c) 國際收支도 改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普通 國際收支와 貿易條件은 二律背反的競合關係에 있

다。卽 貿易條件이 改善되면 國際收支가 惡化하며 國際收支가 改善되면 貿易條件은 惡化된다。四九年九月十八日の 磅貨切下措置의 例를 든다면 當時 英國(歐洲各國도)은 弗貨와 金 備의 不足으로 因한 國際收支의 逆調를 改善하기爲하여서는 輸出量을 增加할 必要가 있었다。磅貨切下는 磅貨基準商品一單位의 對外交換價値의 低落을 意味하므로 英國의 輸出振興策으로는 有効하다。一例를 들면 一磅對四弗의 境遇의 英國商品五磅에 對한 弗貨表示輸出價格은 二〇弗이지만 一磅對三弗로 平價切下를 한다면 同商品의 弗貨表示輸出價格은 十五弗이 된다。이와같이 輸出價格의 低落으로 輸出振興이 促進되며 따라서 國際收支均衡上으로 보면 必要한 措置이다。

그러나 이것은 反對二本다면 平價切下는 英國商品一單位의 對外交換量의 減少를 意味하므로 從前과같이 同一量의 輸入을 繼續적으로 確保하자면 從前보다 더 많은 輸出을 維持하여야 된다는 結果가 된다。이것은 英國의 貿易條件의 惡化를 意味한다。

그러나 今番의 E.C.E의 主張은 通貨를 引上하면 貿易條件도 改善되며 國際收支도 均衡維持가 可能하다는 새로운 見解의 發見이라 하겠다。

그러면 그立論의 根據는 무엇인가 E.C.E는 世界的인 原料와 製品の 不足을 指摘한다。軍擴經濟下의 物資不足의 情勢下에서는 通貨引上으로 歐洲通貨基準의 輸入價格이 低落하여도 이때문에 輸入量만 増進되고(通貨를 引上하면 自國商品一單位의 對外交換量이 増加하므로 輸入品의 弗貨表示價格이 低落하여 輸入을 促進시킨) 輸出量을 減少시키는 結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通貨를 引上하면 輸出品의 弗貨表示價格이 昂騰하므로 輸出을 減少시킨)。歐洲의 輸出品을 보면 金屬製品、機械五五%、纖維二五%로서 都合 八〇%를 차지하는 이들商品은 弗貨價格이 昂騰되어도 世界的物資不足에 빛우어 販賣가 惡化되지 않는다는 것이다。設令 販賣가 惡化되더라도 歐洲를 爲하여서는 더욱 多幸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EOE理論의 基調는 輸入原料品昂騰에서 誘發되는 인플레이션對策, 貿易條件改善策 및 國際收支維持策으로서 通貨引上을 從屬하는 데 있다.

특히 EOE는 通貨引上에 依한 物價下落率에 關하여, 具體的數字를 들고 있다. 歐洲通貨는 三〇% 引上한다면 卽 磅貨로서 二弗八〇仙을 四弗로 引上한다면 大體로 歐洲通貨基準의 物價는 二〇% 下落하리라는 豫想을 세우고 있다. 歐洲의 對外輸入의 七〇%를 차지하는 棉花, 煙草, 穀類, 砂糖, 木材, 石炭等의 非貨物資(生産者 또는 供給者으로서의 非貨地域이 非貨價格을 決定하고 있는 物資)의 非貨價格은 歐洲通貨를 引上하여도 變動이 없으나 歐洲通貨基準으로서의 引上率만치 下落한것을 勸案한 때문일 것이다.

또한 EOE는 戰後換問題의 焦點的課題인 換管理와 換率問題等에 關하여서도 獨特한 見解를 가지고 있다. EOE는 換管理의 前提下에서 反인플레이션政策으로서의 外換政策의 成功을 約束하는 二個의 條件을 다음과 같이 列擧하고 있다.

(a) 換率의 屈伸性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換率을 固定하였기 때문에 海外의 所得, 物價變動等의 影響이 그대로 國內로 波及되기 쉽다는 것이다. 固定레이트가 그러한 波及의 手段이 되어서는 「레이트」의 固定化의 意味는 發見할 수 없다. 換率의 安定은 事實上 通貨價值安定의 一様相에 不過하다. 物價는 勿論하고 諸般事態가 不安定한 歐洲에서는 情勢判斷에 따라서 隨時로 「레이트」를 檢討訂正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그리고 國家에 依한 換管理를 所與의 既定事實으로서 認定하고 있음은 勿論이다. 그러한 伸縮性있는 換政策을 하기 위하여서는 換管理의 緩和는 姑捨하고 오히려 強化를 前提로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b) 換率引上政策도 單純한 通貨引上으로서가 아니라 財政政策, 投資, 消費의 削減政策 및 資金政策等

의 一般經濟政策의 一環으로서 劃策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三) 國際通貨基金 IMF의 報告

IMF의 見解는 一九四九年的 磅貨切下와 韓國動亂을 契機로 하여 大體로 各國의 國際收支는 改善되었으므로 國際收支(balance of Payments)의 均衡上の 必然性으로 하는 換管理는 向後부터 緩和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相當히 緩和할 수도 있다는 前提로부터 出發하여 同時に 此際의 管理緩和策은 인플레이對策으로서도 一助가 된다는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勿論 그러한 世界情勢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如前히 不均衡狀態의 國家가 있다는 것도 肯定하고 있으며 또한 再軍備經濟의 戰略上の 目的으로 하는 어느程度까지의 換管理를 하나의 條件으로서도 認定하고 있다. 그리고 換管理緩和의 三個條件으로서 (a) 經常的去來에 對한 一般的換管理緩和, (b) 特定國에 對한 差別措置中止(諸通貨에 對한 差別의 또는 複數的取扱中止), (c) 通貨의 交換性의 一般的均衡等은 되고 있다. IMF는 換管理의 緩和를 提唱하는 反面에 있어서 換率設定에 關하여서는 對「基金」固定메이트를 堅持할 것을 固執하여 不辭한다. 그러나 換管理緩和와 固定메이트의 堅持라는 것은 IMF의 設立當時의 目標의 하나였고 決코 새로운 問題는 아니다. IMF는 設立始初부터 戰後의 支拂手段欠如(弗貨不足)로 因하여 畸型的으로 簇生한 二個國間の 轉務支拂協定の 分立網의 交錯線上에서 成立된 貿易의 狹隘化를 打開하여야 할 巨大한 問題에 直面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難問題解決을 豫想하였기 때문에 設立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리하여 IMF는 孤立主義의 通商政策을 是正하고 國際적으로 支拂手段이 없는 國家에는 이를 提供하여 外國換諸制限을 漸次로 撤廢하면서 各國通貨의 交換性을 回復하는 途程에서 多角의 自由決濟制에 依한 貿易通商量의 普遍的擴大化를 確立하려는 것이다. 다만 換率에 關하여서

는 換安定이라는 見地에서 一段 自國通貨의 金 또는 美弗貨에 對한 平價를 基金同意下에 決定한 然後에는 自國本位의 國際收支調節等의 手段으로서 自意로 換時勢를 變換하여 國際的換去來秩序를 弄亂시키는 것을 禁止한다 이것이 IMF의 固定레이트堅持의 趣旨이다. 今番의 報告에 있어서도 이二個의 原理에는 何等의 變更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強調하고있다. 單只 磅貨切下와 韓國動亂을 契機로 하여 換緩和의 時期가 豫期한것보담도 早速히 到來하였다고 判斷하는 것이다. 換管理와 換率設定에 關한限 이렇게 IMF는 ECU와 正反對의立場에 서고있다.

또한 國際經濟의 現段階의 認識上에 있어서도 相異한 見解를 갖이고있다. IMF는 以前の 磅貨切下의 効驗을 높이 評價하고있다. 卽 通貨切下에 依하여 世界的인 物價의 不均衡은 大體로 調整되었고 인플레이셔도 効果적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磅貨切下의 利得은 今後에도 그効力을 나타낼것이라는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그런데 前章에서 論한바와같이 ECU의 見解는 磅貨切下의 妥當性의 限界點에서 出發한다. ECU는 當時의 弗貨不足에 依한 國際收支狀況의 逆調라는것은 그實相을 보면 當時의 美國의 一時的景氣後退에 依한 産業活動의 沈滯와 世界通商의 沈滯等に 基因된다고 斷定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〇%前後라는 大膽한 切下率으로써 서투른 治療에 着手하였다. 當時의 經濟基調라는것은 極히 一時的인것이다. 그證據로서 韓國動亂以後 歐洲의 物價는 比較的으로 上騰하여 輸入原料價對輸出製品價의 缺狀價格差는 擴大激成되어서 ECU의 算定指數에 依하면 輸入原料價의 高騰率은 輸出製品價의 一八〇% 歐洲全般에 亘하여 인플레이션을 誘發시키면서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通貨引上으로 이過程을 中斷하여야 된다는것이다.

(四) 國際經濟上の 意義

以上에서 歐洲通貨引上問題를 圍繞한 EOE對IMF의 論爭點의 大綱을 淸見하여왔다. 여기에서는 그와한 意見對立의 由緣, 換時點操作의 原則에서 본 小批判, 問題의 將來및 國際經濟上の 意義等에 關하여 若干의 考察을 試圖하여보겠다.

(가) 論爭의 由緣

以上에서 概觀하바와같이 問題의 焦點의 對立點은 國際換의 가장 重要한 「메이만」인 換管理(exchange control)과 換率(exchange rate)의 關한 見解差異라하겠다. 이것을 中心으로하여 一般的異論의 展開되어있다고 볼수있다.

IMF는 換管理와 換率問題를 別個로 보고있다. 그러므로 換管理는 緩和하라고 主張하면서도 換率만은 固定하여야된다는 持論을 變更하지않는다

그러나 EOE는換管理를 既定事實로서 前提하고있으며, 따라서 EOE는 換管理는 말할것없이 이 와同時에 必隨되는 國內의 其他諸統制의 前提下에서 이統制化된 經濟의 實勢에 副應되는 換率을 隨時로 發見變更하자는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IMF는 固定率의 前提下에서 이固定率을 維持하기爲한 內外經濟政策을 相定하고있다. 經濟政策의 一環으로서의 外換政策의 原理의 始初에 있어서 兩機關은 서로 對立된 立場에 서고있다. 이러한 對立의 必然性은 무엇이며 어떤 意義를 갖일것인가

結論을 먼저 말한다면 EOE는 國民經濟的立場에 立脚하고있음에 反하여 IMF는 美國中心의 國際經濟的立場을取하고있다. EOE는歐洲諸國의 微弱한 國民經濟單位內에서 換戰略을 巧妙하게 操縱하면서 非貨의 浸透를 防止하려는 底意를 露出하고있다. 國民經濟權限라는 見地에서 본다면 換管理는 前提條件이 되며 換率도 國內經濟의 實勢에 應할수있도록 屈伸性이 있어야할것은 勿論이다. 萬

一 換率은 固定한다면 海外的 物價高、所得效果 및 景氣變動上의 經濟的惡條件이 그대도 國內로 波及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利害에 關한限 英國은 爲始한 歐洲各國은 共同戰線下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各國이 各自의 換管理體制下에서 任意로 變轉無常한 換率을 造作하는 것이 아니라 亦是 歐洲全體가一體가 되어서 「歐洲清算同盟」(E.P.U.)의 例와 같이 一定한 協調的範圍內에서 相互間에 協定率을 維持할 것이다.

이에反하여 I.M.F.의 見解는 美國中心의 汎世界政策的인 하나의 國際經濟單位의 利害를 反映하고 있다. 世界各國通貨의 對非貨平價를 一定한 固定率에 定着시켜놓고 換率理만을 緩和의 方向으로 誘導한다면 非貨本位의 世界市場을 開拓維持하는 手段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效果的이라하는 것은 明白한事實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보면 I.M.F.는 「팩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代辯者役割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第一次大戰前의 確貨에 依한 「팩스·부리타니카」(Pax Britannica)의 成立過程을 回想한다면 看破하기 쉬운 事理이다. 何如間 I.M.F.自身의 立場으로 본다면 歐洲市場確保에는 今後에도 第二의 對歐마일 援助라든지 또는 投資라든지 그形態如何를 莫論하고 非貨供給이 繼續的으로 必要하다는 苦衷은 解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O.E.는 이제와서는 (本論爭이 提出된 一九五一年 上半期現在) 美國의 物資供給力에는 餘裕가 없다고 볼 뿐만 아니라 歐洲自體의 原料生産國에 對한 輸出供給의 增加力與否도 疑心하고 있다. 世界市場이 「파이야·즈·마·켈」로부터 「켈터·즈·마·켈」로 變轉되는데 物資의 買入、貯藏이 競争으로 進行되는 軍擴經濟의 現實에 빛우어 原料와 製品의 世界的不足의 緩和는 可期하기 困難하다고 判斷한다. E.O.E.는 이러한 輸入優先時代에는 貿易條件을 改善하므로써 그有利한 條件下에서 物資를 確保하는 것이며 同時に 副次的으로는 美國의 排他的原料買入行爲로 因하여 不當하게 引上

原料品價格의 騰貴가 製造品價格에 波及되어 國內인플레이션의 誘引이 되려고 함은 中斷하려는 것이다。歐洲의 그러한 國民經濟的緊急要求를 滿足시키는데는 通貨引上措置가 가장 適切하다는 것이다。E.C.M.의 換管理固執과 屈伸的換率採擇의主張、I.M.F.의 換管理緩和와 固定레이트堅持의主張——이 原則的對立의 必然性과 意義는 以上으로써 本質的으로 窮明되었을 것이다。

(나) 換管理와 換時勢操作의 原則

다음에는 換時勢操作의 政策的原則으로부터 歐洲通貨引上問題를 檢討하여보기로 하자。

一般的으로 通貨平價를 裁定하는데 있어 換時勢의 實勢를 그대로 反映하는 標準換算레이트를 發見하기는 至極히 困難하다。標準率을 發見하자면 通貨의 過高評價와 過低評價의 諸結果를 判定한 後에야 비로소 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爲先 一國의 通貨平價를 評價하는 方法으로서는 購買力平價比較法든지 國際貸借上の 信用의 強弱度라든지 또는 政治、經濟、社會的條件이 미치는 心理的影響等을 助案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더욱 重要한 것은 그러한 基礎위에서 算定된 平價決定은 實際的으로 引上이나 切下나 또는 現狀維持나 하는 擇一의 問題는 이로 말미암아 招致될 그 國家의 國際收支、貿易條件、價格體系(특히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對策으로서의)、生産、雇傭 및 換管理與否等에 關한 諸政策的考慮의 合意點에서 決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通貨引上(특히 過高評價)의 境遇에는 (a) 貿易條件은 國內商品一單位의 對外商品과의 交換量이 增大하므로 有利化하며 (b) 國際收支는 輸入促進、輸出減退傾向으로 惡化하며 (c) 國內價格水準下落作用으로 米價의影響을 맞이하며 (d) 生産減退와 雇傭縮少의 可能性이 伏在하며 (e) 換管理의 廢止 乃至 緩和를 不可能케 한다。이것은 管理를 緩和 乃至 廢止한다면 物價騰貴와 인플레이션을 助成한다고 推定하기 때문이다。(f) 通貨의 對外價値를 後에 切下하여야 한다。이事實은 通貨의

安定性的 信賴은 阻害하며 資本逃避傾向을 誘導한다。

切下의 境遇에는 大體로 以上과는 正反對의 現象을 招來한다。勿論 換問題에 關하限 細部的異論은 許多하야 一定한 原則을 導出하는 것은 거이 不可能하다。그學說史的論議는 省略하고 여기에서는 EOE의 所論인 (a) 通貨引上에 依한 貿易條件과 國際收支의 兩立의 改善可能性、(b) 貿易條件中心의 屈伸的換率主張等を 檢討하자。

一般的으로 通貨引上의 境遇에는 貿易條件은 改善되지만 國際收支의 惡化를 豫想하는 것이 換常識이다。歐洲通貨引上은 歐洲通貨基準의 輸入價格을 低落시키는 同時에 輸出品의 弗貨價格을 昂騰시킬 것이므로 輸入을 促進하고 輸出을 減退시킬 것이니 國際收支의 逆調를 招來할 것이다。

以前的 磅貨切下時는 輸出促進、輸入減縮에 依한 國際收支改善을 圖謀하였으나 그反面 貿易條件은 不利하였다 (國內商品一單位の 對外商品과의 交換量の 減少의 結果로서)。「하롯트」(Roy F. Harrod)의 磅貨引上論은 이原則을 英國의 條件위에서 演繹하고있다。그는 大體로 英國에는 貿易業者 또는 製造業者의 立場과 反面에는 銀行의 立場이 있으며 前者則으로 볼다면 戰後에도 그事情은 惡化되지 않고 物理的으로는 赤字를 免하고 있으나 이에反하여 銀行側으로서는 一九四九年에 이르기까지 金鎊弗貨準備의 支出이 增大하야 切下의 必要가 있었다。그러나 그것은 貿易條件을 惡化시키므로 貿易家、製造家에게는 不利하였다。國際收支도 大體로 改善된 때인만큼 이번에는 貿易條件을 改善하야 이들의 立場을 살피자는 論旨이다。

그러나 EOE의 (a) 貿易條件과 國際收支의 兩立論 (b) 屈伸的換率採擇主張은 世界經濟의 現段階에 關한 그自身의 認識에서 오는 것이다。EOE는 世界の 物價高와 인플레이션은 아직 伏在的으로 繼續될 것으로 보고 있다。壓倒的인 輸入原料價高는 製品生産코스트를 上昇케하므로 原料價對製品價

의 不等價狀態는 漸次로 是正되어가기는하나 그過程에 있어서 價格인플레이가 原料品價로부터 製造品價에波及되면서 인플레이作用을 한다는것은 事實일것이다.

美國의 基礎戰略物資買入으로 因한 原料價引上과 이輸入原料品價高로 因한, 卽 對外的原因으로 招來되는 인플레이의 可能性——이防禦으로서 ECE는 換率의 屈伸性을 主張한다.

世界市場의 「벤더」즈·마「켈」에로의 再轉換, 世界의인 物資不足과 物資爭奪戰——ECE는 이더한輸入優先主義到來時代에는 通貨引上에 依한 有利한 貿易條件下에서 物資를 確保하는것이 先決條件이라고 看做한다. ECE는 通貨를 引上하여도 이때문에 輸入量만 增大되는 일은 없다고 斷定한다. 卽 世界의인 物資不足으로 輸入量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다고 보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論法은 世界的物資不足이 緩和될때에는 妥當性을 잃을것이다. 加奈陀는 一九四六年에 美國의 物價統制撤廢로 因한 物價騰貴를 豫想하여 「벤」트引上을 敢行하였는데 國際收支逆調로 四九年九月의 磅貨切下時에 再次切下의 事情을 考慮하지않을수없다.

ECE의 「벤」트의 屈伸的調整策은 海外의 物價高, 所得高等의 經濟的惡條件을 防止하는 手段으로서는 國民經濟的要求의 妥當性을 認定할수있으나 國際的換安定이라는 見地에서는 一定한 限界를 두어야할것이다. 萬一 各國이 「國內均衡」의 優先下에서 屈伸的換率을 隨時로 採擇한다면 軍擴不況의 一定段階에 이르러 意外의 換幣평이 盛行하여 부엀튼·웃즈機構를 弱體化할 憂慮가 濃厚하기때문이다.

如何間 「歐洲通貨引上論議」를 換安定이라는 見地에서 局限하면 그自體로서는 다음과같이 結論할수있을것이다.

卽 歐洲諸國의 國民主義的利害의 貫徹을 至上目標로하여 以前の 磅貨切下の 合理化는 「國際收支改

善(輸出價格의 引下)이라는 點에서 發見되었고 이번의 歐洲通貨引上論議는 「貿易條件改善」(輸入價格의 引下)이라는 點을 主目的으로 삼고 正當化하려고 하는 傾向을 看取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問題의 現象的 拾象에 不過하다. 換管理와 換率問題에 關하여 兩機關이 正反對의 意見을 固執하고 있다는 것은 뚜렷한 構造의 危機意識의 一齣으로서 國際經濟의 立場에서 問題의 將來를 注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 問題의 將來 — 뚜렷한 構造의 危機 意識에 關聯하여 —

IMF의 外換管理의 緩和乃至 撤廢의 要求라든지 ECU의 歐洲通貨引上論도 結果에 있어서는 實現되지 않았지만 大體로 이러한 主張을 提唱하게 된 第一의 根據는 案援助에 依한 歐洲의 生産水準回復과 通貨切下措置에 依하여 歐洲各國의 金貨非貨準備가 充實化하여 國際收支가 好轉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특히 英國의 非貨準備增加率은 一九四九年九月의 磅貨切下當時의 十三億四千萬弗에서 五一年三月末에는 三七億五千八百萬弗로 飛躍적으로 增加하였으며 五〇年度의 國際收支는 二億二千九百萬磅이라는 三〇年以來初有의 記錄的 黑字을 示現하였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美國의 非貨 出超의 減少, 金貨準備의 流出, 物價의 騰貴等의 結果로서 磅貨 및 其他通貨에 對하여는 以前과 같이 強勢의 關係에 있지 않으므로 非貨에의 自由兌換을 目標로 하는 換管理의 緩和라든지 또는 對非換率의 引上(通貨引上)을 생각하게 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特殊的으로는 軍擴下의 인플레이를 防止하자는 것이다. 今番의 勸告에서 IMF는 換管理의 緩和에 依하여 輸入을 促進하고 經濟的 生産을 刺激하지 않는다면 人플레이가 高進한다고 主張하는 한편 ECU도 對外페이트의 引上에 依하여 輸入價格을 引下하여 人플레이를 防止할 必要를 力說하고 있는 것도 그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他方 通貨引上은 歐洲各國의 輸出業者의 自國貨의 減收를 招致하여 輸出에는 不利하게 될

것이다。勿論 再軍備下에서 輸出餘力은 自然히 縮小될 것이며 또한 海外市況(當時의)에 빛우어 外貨基準價格은 더욱 昂騰될 餘地가 있으므로 그만큼 輸出業者의 不利도 相殺할수 있다는 判斷을 나릴수도 있 것이다。

以上은 當面한 現實的利害關係에서 演繹한 兩側의 主張의 根據인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現象而의 解釋이고 本論爭의 根據는 實心 뿌리가 깊다는 것을 認識할 必要가 있다。本論爭의 其役의 歸結을 본다음에 基本的인 觀察을 하기로 하자。

IMF는 그規約에서 約定한바와같이 戰後調整의 意味로서 五個年間の 經常的未來에 對한 換管理의 過渡的實施가 終了되는 五二年三月末以降 換管理의 緩和乃至 廢止를 實施할 義務가 있으므로 於此彼 이에 關한 그의 態度를 決定하여야 할 立場에 있으며 이것을 豫想하여 ECE는 미러 歐洲諸國의 立場을 闡明한것이 以上の 對立으로써 露呈되었다고 볼수 있다。이對立은 다음과같이 「基金」總會에서 表面化되고 있다。

IMF第六回年次總會(五一・九・一〇—一四)에서 루이스事務理事는 換管理의緩和、特히 弗貨에 對한 差別待遇의 緩和를 強力히 要求하여 「IMF融資를 希望하는 國家는 通貨를 安定시키기爲하여 인플레이抑制策을 取함과 同時に IMF의 目的에 順應하여 通商制限을 緩和乃至 撤廢하여야 된다。即 國內에 있어서의 支出削減과 徵稅의強化、그리고 外國換管理의 早速한 撤廢가 强請된다。…… 加盟國이 來年三月以後에도 換管理를 繼續한다고 主張하는 境遇에는 IMF는 이에對하여 强硬策을 取하겠다。우리들은 過去外換의 諸制限에서 얻은 當該加盟國의 既得特權이 此後 一層 自由로운 國際通商과 國際決濟에 對하여 障害가 되지 않도록 未然에 이들의 諸制限을 緩和乃至撤廢할 方法을 協議하겠다」라고 強調하는 同時に 트루먼前大統領도 「現在 自由諸國이 再軍備를 推進하는 結果 諸國의 通商制

限의 撤廢는 一層 困難하여졌다. 그러나 나는 加盟各國의 外換制限을 輕減하는 同時에 再軍備을 口實로 하여 貿易・外換의 諸制限을 是認하지 않도록 要望한다」는 附加演說까지 하였다.

이에 對하여 英國을 爲始한 大部分의 國家는 再軍備의 必要에서 向後 一・二年間은 緩和할 수 없을 뿐더러 嚴重한 換制限을 撤廢한다면 大規模의 非貨欠損을 招來할 것이라고 猛烈한 反對를 하였다. 結局 美國은 IMF 協定대로 緩和할 수 없는 國家는 各自의 理由를 提示하여야 하며 IMF當局이 그理由의 妥當性與否를 嚴格히 審査할 것」을 要請한 故로 同問題는 常務理事會에 回附되었다. 그러나 美國의 強調도 끝끝내 實現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IMF의 第六回總會에서 美國對歐洲의 對立은 深化하였던 것이다. 九月二十四日 夕 타임즈誌는 「通貨基金의 失敗」라는 題目下에서 歐洲諸國을 代辯하면서 IMF와 美國側이 要求한 「換管理의 緩和乃至撤廢主張을 痛烈하게 論駁하고 있다. (註參照) 타임즈誌는 英國 및 佛蘭西의 國際收支의 逆轉을喚起하는 한便 輸入原料品價高騰으로 招致되는 英國의 貿易條件의 惡化를 指摘하면서 換管理에 關한 IMF規約의 自己修正을 促求하는 同時에 甚至於는 「國際復興開發銀行」과의 合併까지 主唱하게 된 것이다.

(註) 「通貨基金의 失敗」(타임즈誌, 一九五二, 九, 二四)

하리스・드루먼美大統領은 開會劈頭 높은 語調로 「나는 實際로 必要치 않는 貿易과 外換의 諸制限을 正常化하려고 하는 代表는 한사람도 없을 것으로 確信한다」고 演說하였다. 그러나 이演說이 끝나기도 바쁘게 「볼튼」英代表는 다른 代表들에게 現實을 換起시켰다. 그는 一九五二年 또는 五三까지는 英國貿易의 諸制限을 全적으로 緩和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強化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基金」이 이렇게도 悲慘하게 失敗된 原因은 무엇인가. 부렛튼・웃츠協定當時의 世界經濟의 指導

者들은 今日과 같은 深刻한 弗貨不足을 豫見하지 못하였다는 點이다. 그들은 單純히 加盟國의 貿易均
衡上의 一聯의 短期的變動으로 惹起되는 一時的不足만을 想像하였고 이것은 「基金」의 短期融資로써
克服될 수 있다고 判斷하였다. 그러므로 長期的인 弗貨不足의 危機에 直面하자 八〇億弗의 「基金」資金
은 거이 無用之物이었다. 「基金」의 最近의 貸付狀況을 보면 十八個一分 「부라질」에 融資한 二千
八百萬弗에 不過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폴덴에 依한 對歐援助과 三十六個國의 通貨切下
措置로써 어느程度的 安定을 一九五〇년까지 維持하여왔다. 그러나 韓國動亂은 이 安定狀態를 顛覆시
켰다.

英國의 例가 가장 逼真한 困境에 빠지고 있다. 原料品價格의 一般的上昇에 따라서 英國의 輸入
品價格의 平均昂騰率은 三十五%였음에도 불구하고 輸出品은 겨우 十四%의 昂騰率을 보였을 것이
다. 이러한 結果로서 英國이 겨우 獲得한 弗貨는 再次 減少하기 始作하였다. 五一年度の 英國의
貿易欠損은 五〇年度の 倍額인 二十二億弗에 達하였다.

英國은 또한 其他의 通貨問題에 있어서도 하나의 難題에 直面하였다. 歐洲通貨에 있어서도 지난 八
月 英國의 支拂超過는 一億八千三百萬弗에 到達하였다. 佛蘭西의 對歐洲諸國間의 決済도 亦是 赤字
이다. 不吉한 消息이 累積됨에 따라서 磅貨의 自由市場價格은 現在의 二弗八〇仙으로부터 二一〇%以
上이나 되는 二弗四五仙으로 低落하였다. 切下說이 再次 風聞에 오르게 되었다. 倫敦의 「파이낸셜」·파인
스紙는 「英國의 財政은 戰後 最惡의 狀態에 빠졌다」고 覺醒을 催促하였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英國은 貿易과 通貨上의 諸制限을 全的으로 緩和할 수 없는 것이다. 英國이 스머
1링·폴터의 銀行인限 同폴터內의 餘他의 國家들도 그러한 制限을 緩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現
實을 無視하고 美國으로부터 重壓的使喚을 받은 「基金」은 그의 八〇億弗의 資金使用에 있어서 貿易

兌換의 諸制限을 緩和하려고 努力하는 國家에 對하여서만 融資를 供與할 수 있다는 嚴格한 制限을 堅持할 것을 決定하였다.

明白히 「基金」은 無用하다. 많은 銀行家들의 생각에 따르면 「基金」은 이제와서는 換問題에 關한 그의 規約을 變更하는 英斷을 나리든지 또는 그 姉妹인 「國際復興開發銀行」에 編入되어야 할 것이다.

戰後의 國際經濟의 最大의 課題는 世界的인 弗貨不足을 解決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弗貨事情의 推移를 瞥見하기로 한다.

一九四八年 秋期부터 始作된 美國의 景氣後退가 四九年後半期에 이르러 弗貨危機를 激成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一九四九年九月十八일에 斷行한 磅貨切下措置에 의한 弗貨調整策의 結果로 歐洲各國의 國際收支狀況은 大體로 改善 乃至 好轉의 傾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은 事實이다. 더욱이 五〇年六月부터 本軌道에 올르기 始作한 軍擴景氣의 刺戟 밑에서 五一年上半期에 이르러 弗貨事情은 一層 緩和되었으나 五一年下半期부터의 軍擴슬립부로 因하여 再次 危機를 告하게 되었는 것이다.

이 弗貨事情의 再惡化는 前記한 바와 같이 五一年九月의 磅貨와 法貨의 平價切下說流布에서 集中的으로 表現되고 있는데 多幸하게도 平價切下는 實現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國際通商 및 換政策에 及인 影響은 甚大한 것이다. 이事情을 暫間 瞥見하기로 하자.

美國은 軍擴延長策에 따라서 五一年二月부터 戰略物資의 買入을 一部中止 乃至 削減하기 始作하였고 이에 따라서 西歐諸國의 對美決濟는 輸出不振과 貿易條件의 惡化로 因하여 再次 支拂超過로 逆轉되고 國際收支는 다시 慢性的逆轉로 復歸하였다. 英國은 「歐洲支拂同盟」(EPU)에 對하여서도 債務國이 되었다.加之하여 軍擴인플레이下的 物價와 賃金의 惡循環、財政의 惡化 등의 諸危機가 特出하게 되었

고 再軍備의 強行은 그 限界性을 露呈하였다. 非但 磅貨와 法貨의 時勢下落은 만 아니라 資本主義諸國의 通貨는 全體로서 軟化하여졌다. 「國際通貨基金」當局이 五一年九月二八일에 非通貨用金에 對하여 一은스當三五弗의 公定時勢를 不得已 拋棄하고 프레이안付自由去來를 承認하였은 這般의 事情을 充分히 說明하고있다. 더욱이 上記한바와 같이 「國際通貨基金」은 九月一일의 總會에서 「基金」當局이 基金設立當時 그 規約中에서 約定한바와 같이 五二年三月末以後부터 換管理를 撤廢 乃至 緩和할것을 強硬히 要求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英佛을 爲始한 西歐諸國의 猛烈한 國民主義的反對로 인하여 實現되지 못하였는 것이다.

各國의 非貨不足의 根本的인 解決策이 없이는 換管理의 緩和 乃至 撤廢는 實現되지 못할것이니를 認했다. 果然 戰後 이 非貨不足을 改善하기爲하여서는 美國이나 「基金」이나 또한 其他諸國도 많은 努力을 하였다.

非貨不足의 世界經濟上的 構造的原因에 對하여서는 마-1 援助, 相互安全保障援助 및 其他各種의 援助를 提供하였고 國際價格上的 不均衡에 基因되지는 原因에 對하여는 平價切下, 바트-1 緊縮政策 其他各國의 디스·인플레이政策의 採擇을 들수 있으며 景氣循環的原因에 對하여는 美國 및 其他國의 軍需經濟로써 對處하였기때문에 非貨事情은 應當 緩和되어져야 할것인데 非貨不足은 如前히 慢性化하고있다. 想像할수있는 것이 可能한 對策은 모다 講究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慢性的不足에서 沈滯하는 最大의 原因은 奈邊에 있는가. 이問題를 解決하지않고서는 換管理의 撤廢의 可否, 換率의 彈性의 可否라는 課題를 現實問題로서 解決할수없는 것이다.

非貨不足의 長期的인 根本原因은 美國産業成長率의 絶對性에 있는 것이다. 美國資本主義의 所謂 「長期的沈滯」(Secular stagnation)에 基因되지는 過剩貯蓄과 過少投資를 解決하기爲하여 美國은 輸出過多

輸入過少現象에 있으나 이와는 反對로 其他國은 生活維持와 經濟開發上 恒常 인플레이의 長期膨脹과 入超에서 脫脚할 수 없음으로 金과 弗貨는 美國에 集中하여 偏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美國에는 五一年末現在로 自由世界の 保有金の 七〇%에 該當되는 約二二八億弗의 金이 偏在하고 出超도 每年 數一〇億弗에 達한다。加之하야 美國의 一九三四年の 金輸出禁止가 아직도 解除되지 못하고 弗貨와 碎貨의 自由交換이 停止된 以來로 各國은 對美輸出、被援助 및 借款 以外에는 弗貨를 獲得할 機會가 없게 되었다。 「基金」은 이미 그 設定當時의 規約속에서 弗貨가 「寡少通貨」(scarce money)가 될 憂慮가 있다는 字句를 使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國際收支의 決濟는 去益 不可能할 것이니 國際的 換安定은 있을 수 없게 되고 通商은 極度로 縮少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決濟別의 封鎖的經濟圈은 鼎立되고 마치 二大戰間의 貨幣經濟의 再現을 演出할 것이다。 이것을 防止하기爲하여 루벳튼·웃즈機構 特히 「基金」은 換資金の 潤澤과 換安定을 爲하여 莫大한 努力을 하였으나 國際經濟進展의 現實의 過程은 더 옴과같이 不安과 矛盾을 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本文의 冒頭에서 平叙한 바와같이 二大戰後 國際經濟再建의 二大支柱로서 登場한 「루벳튼·웃즈機構」와 「國際貿易憲章」은 國際經濟의 恒久平和를 企圖하야 二大戰中의 封鎖的·貨幣的經濟圈을 解體하고 支拂手段이 없는 國家에는 이를 提供하여 對外支拂能力을 培養하여 주면서 諸通貨의 自由交換性을 回復하는 途程에서 自由通商과 自由支拂體系의 完成에 依하여 世界의 雇傭과 通商의 擴大의 均衡을 達成하자는 것이었다。 이目的을 達成하기爲하여 「國際通貨基金」은 國際收支逆調의 短期的補充을, 「國際復興開發銀行」은 對外購買力과 支拂能力培養 및 生活水準向上을 爲한 經濟開發上의 長期的弗貨資金供與을, 그리고 「國際貿易憲章」은 自由通商體系의 暢達을 擔當하기고 되었다。 特히 「國際通貨基金」은 國際換與金融의 直接擔當機關으로서 그의 가장 野心的인 目的은 世界各國通貨의 交換性的 回

復에 依한 支拂上의 障害除去와 多角的인 國際自由貿易의 發展이었다.

이렇듯 貿易統制나 外換管理政策의 強化는 모다 부렛튼·웃츠協定精神에 背反된다. IMF의 「轉形期的換管理政策」과 「各國通貨의 對美弗平價率의 固定化策」도 이多角的인 自由通商과 自由支拂體系의 具體化的 地盤을 닦기爲한 準備工作이었다. 換言하면 「基金」은 各國의 弗貨不足의 現實의 深刻相을 미리 洞察하여 一時에 多角的自由通商을 實施할수없음에 비추어 換安定的 過渡的措置로서 弗貨 또는 金에 「링크」된 單一外換率만을 認定하고 外換率의 屈伸性을 禁止한것이다. 이것은 二國間外務協定에 依한 具體化를 防止하자는데있었다. 「基金」의 그러한 過渡期的換管理政策은 應當 各國의 外貨資金의 潤澤과 通貨交換性的 回復을 可期하여 外換의 屈伸制(Flexibility system)로 移行할 布石이었으나(設立當時의 約定에 依하면 一九五二年三月末以後부터 換管理는 緩和乃至 廢止하기로 되었다) 이崇高한 國際主義的理想協定도 經濟的國民主義의 現實앞에서는 하나의 幻想으로 轉化하려는 危機에있다.

이제 IMF는 그最初의 計劃대로 戰後五個年이라는 準備時代를 經過한 五二年三月末부터 換管理를 廢止 또는 緩和할것을 要求하였으나 FCE는 歐洲各國을 代表하여 이에 猛烈히 反對하고있을 뿐더러 歐洲通貨引上까지 主唱하고있다.

事實上 戰後八個年間的 國際經濟의 進展過程에있어서 부렛튼·웃츠協定の 幾個部分은 變시 修正되어 休紙化되거나 더듬이없게되었다. 다음에 부렛튼·웃츠機構의 危機意識의 一齣으로서 同協定の 規約과 目的에 背馳되는 諸措置를 列舉하여보기로하자.

(1) 戰後 外國換問題의 가장 劇的인 事件은 美英借款協定(一九四五、十二、六)에 依據하여 對英三七億五千萬弗의 借款供與의 交換條件으로서 英國이 不得已 實施하여본 「弗貨와磅貨의 自由交換의再

開」(一九四七、七、十五)가 實施後 六週間도 繼續되지 못하고 同年八月二十一日자로 停止되었다는 事實이나. 이것은 IMF의 矯極目標인 通貨의 交換性的 回復의 試驗이 失敗하였다는 證左이다.

(2) 四八年一月二十五日の 프랑貨의 約八割의 大幅切下措置이다. 그內容은 (a) 約八割의 平價切下 (一弗對二五〇프랑으로), (b) 差別的인 多元的 通貨制(multiple currencies), (c) 美弗의 自由市場設置等이다. 勿論 이 「프랑」切下는 「基金」의 承認도 얻지 않고 佛蘭西가 自意로 決定한 것이다. 그以來로 佛蘭西에는 對 「基金」의 公定메이트는 없고 佛蘭西는 「基金」의 資金利用의 權利를 自進하여 拋棄한 셈이다. 어찌 이뿐이랴. 多元的 通貨는 이미 라틴·아메리카諸國에서 또한 自由메이트는 希臘, 伊太利等에서도 實施되어왔는데 以上の 諸措置는 모두 「基金」의 規約과 目的에 違反된다.

그러면서도 「基金」도 結局 그것을 認定한것은 世界貿易構造의 根本的不均衡을 認識하지 않은수있었는가답이다. 그러나 한편 事實은 通貨의 過大評價를 有利하다고보는 輸入重點時代로부터 漸次로 通貨의 過少評價를 有利하다고보는 輸出市場開拓의 時期로 轉換되었다는것, 또는 「셀러1즈·마1켈」로부터 「파이야1즈·마1켈」로 轉換되었다는것, 그와 同時에 對美英攻擊의 積極化를 意味한다는것이다. 이렇게 各國의 國民主義的利害는 이때 이미 벌써 國際主義的 理想에 先行하고 있었다.

(3) 四九年九月十八日の 磅貨切下를 契機로한 歐洲爲主의三十六個의 通貨切下措置이다. 磅貨는 四弗三仙으로부터 二弗八〇仙이라는 約三〇%의 切下를 斷行하였다. 「基金」의 最初의 規約에 依하면 國際收支調節上 上下一〇%의 換時勢變更의 自由範圍를 「基金」과의 協議로써 決定할수도 있다는것만 이 容許되어있었던것이다. 이通貨切下直後 이미十一月에는 複數外換時勢가 漢洲에서 實施되었으며 라틴·아메리카諸國(알제틴, 과라과이, 우르과이)에서 擴大되었다. 複數外換時勢는 世界の 外換時勢不安定을 證明하는 不可避한 現象이다.

(4) 五〇年七月一日의 「歐洲支拂同盟」(European Payments Union)의 結成이다。이 決濟同盟의 究極的인 目的은 西歐의 特定平素內에서 通貨의 自由移轉性(free transferability of currency)과 貿易의 多角化를 實現하자는데 있지만 世界的으로 보면 그것은 勿論 通貨別決濟圈의 分化라고 看做할수있는것이 다。그것이 IMF의 規範內에서 運營된다고 하더라도 事實은 IMF가 尙今도 多角的決濟機構로서 自己機能을 履行하고있지않다는것을 立證하여 남음이 있다。그뿐만아니라 EPU는 排他的인 歐洲中心의 封鎖的決濟圈으로 武裝할 可能性도 內包되고 있는것이다。

(5) 一九五〇年十月一日부터 加奈陀는 캐나다·탈라의 對美非貨의 固定時勢를 廢棄하고 屈伸性時勢制度를 採用한것이다。이에關하여 加奈陀가 「基金」當局의 承認을 얻었는지 또는 承認을 求하는手續을 取하였는지 窺知할 機會도 없었다。

(6) 南에 프리카聯邦은 「基金」의 承認도 얻지않고 一九五〇年中 新產金의 四〇%를 프리미엄附로 自由市場에서 賣却하였다。同聯邦은 政府의 聲明으로써 新產金의 프리미엄附賣却은 「基金」規約의 解釋上 違反行爲가 아니라고 主張하고있었으나 南阿聯邦의 解釋을 正當化할수있는 條件은 「基金」의 規約中에는 없는것이다。同聯邦은 一九四九年九月의 總會에 同聯邦의 新產金의 折半을 自由市場에서 賣却하는 案을 提出하였는데 이때 「基金」이 同意하였으면 問題가 解決되었을것이지만 이것을 一九五〇年의 總會에서 否決하였는것이다。南阿聯邦에 다음가는 世界第二位의 金產國인 加奈陀도 金價引上要請이 迫員하여 南阿聯邦과 同調하게되었는것이다。

金問題는 外換率問題와 똑같이 戰後 國際經濟秩序의 紐帶의 焦點이 되어왔다。周知하는바와같이 「基金」은 加盟國의 通貨平價의 尺度를 金 또는 一은스當三五弗基準의 美弗로 表示하기로하고 그價格으로 金을 制限없이 買收하기로 約束하였다。換言하면 美國의 貨幣法에 依한 一九四四年七月一日當

時의 量目純金分을 貰인 美國弗 卽 純金の 一온스(八、二九四二五六分)는 三五弗의 價格으로 規定
 되어있다. 그러나 問題는 美國이 一九三四年 金價格을 引上하여 現在의 純金一온스當三五弗로 決定
 한後 世界物價水準은 三倍나 昂騰하였으나 單只 金價格만을 當時의 時勢로 據置하였으므로 金の 實
 地의 購買力은 三分의 一로 低下되었다. 이리하여 金生産國은 對外收支의 決濟上 一大不利를 甘受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하여 金の 買入價格을 引上한다는 것은 그만큼 弗貨의 價值切下를 意味한
 다. 그뿐만 아니라 世界の 主要通貨는 「基金」을 通하여 美弗과 結符되어 있으므로 金買入價格引
 上은 美弗은 勿論하고 全世界의 通貨의 一般的價值切下를 意味한다. 이것은 各國通貨의 對 「基金」
 平價의 固定에 이트를 堅持하여 世界の換安定을 圖謀한다는 「基金」路線에 背馳할 뿐만 아니라 特히 美
 國은 인플레이션原因도 考慮하여 以上 金の 流入은 不好하다. 더욱이 美國의 「로이드스」에는 五一
 年末現在로 自由世界の 保有金の 約七〇%에 該當하는 二二八億弗의 黃金이 死藏되고 있다. 金の偏在
 로因하여 金價格을 引上하더라도 金の 需給을 通하여 世界の 通貨와 物價의 平衡作用을 期한다는
 것은 事實上 困難하므로 「基金」도 金價引上要求의 理由의 一半을 首肯하면서도 他方 이를 否定하
 는 것이다.

그러나 「基金」은 軍擴不況下의 換動搖의 公算을 豫測하여 드디어 一九五一年九月의 總會終了後 九
 月二八일에 그規約中 金에 關한 條項은 各加盟國의 自由處分에 一任한다고 發表하였다. 이로써 加
 工金을 一온스當三五弗以上の 自由價格을 認定받게 되었다.

(7) 五一年十月二六일에 成立되고 五二年一月二五일부터 實施된 美國의 對蘇聯國國家에 對한 通
 商制限을 規定한 「바를法」의 發動이다. 또한 이에앞서 五〇年十二月 國聯은 對中共貿易禁止措置를 可
 決公表하였다. 이兩措置는 西歐市場및東洋市場의 傳統的構造編成關係를 畸型的으로 分斷하여 軍擴不況

下の 國際貿易의 縮少의 不均衡化의 一因이 되고 있다. 五〇年五月의 「國聯歐洲經濟委員會」의 「물달 事務局長의 東西貿易促進의 提唱, 五一年八月二〇日에 「國聯歐洲經濟委員會」가 主催한 東西貿易促進을 爲한 유네스코會議 五二年四月의 모스크바國際經濟會議 五三年四月의 「國聯歐洲經濟委員會」主催의 東西貿易會議等의 東西貿易再開의 勸誘는 道般의 事情을 充分히 立證하고 있다.

以上の 一聯의 諸事件은 確實히 부엠티온·웃즈機構의 生硬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通貨의 交換性과 多角의 無差別의 自由通商은 實現되지 못하고 保護主義的 地域主義가 再擡頭되고 있다. 더욱이 軍擴을 밑루에 마르는 世界景氣의 「리셋존」에 際會하여 五二年三月부터 英聯邦을 中心으로 한 世界各國이 露骨的인 輸入制限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美國까지 輸入制限을 規定한 케이트하트輸入制限法案을 五二年三月에 審議하게 됨이 있다. 國際貿易條章을 執行할 國際貿易機構(ITO)는 아직도 實務조차 開始하지 못하였으니 그러한 通商制限措置를 牽制할 道理가 없으며 또한 五二年三月末以降 緩和乃至廢止될 豫定이 있는 外換管理措置는 오히려 強化되고 있다. 軍擴不況下의 弗貨不足의 慢性化, 國際收支의 惡化, 輸入制限運動, 地域主義의 擡頭 및 保護貿易主義의 強化等의 諸現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國際經濟는 부엠티온·웃즈機構가 安易하게 豫定한 國際主義理想의 逆코스스를 指向하고 있다고 判斷할 수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부엠티온·웃즈協定の 違約事項도 相當數에 達하였으나 누구도 이것을 牽制할 拘束力이 없었다.

「通貨基金」과 「國際復興開發銀行」이 戰後의 虛脫期에 際하여 換安定, 國際收支의 改善 및 諸國의 生産向上에 寄與한 過渡의 貢獻은 크다. 그러나 그것이 美國의 마샬援助, 相互安全保障援助 및 輸出人銀行의 長期貸付等의 補充의 附屬物로 轉化되려는 傾向은 美國自身과 世界를 爲하여 憂慮할 만한 不幸한 事實이라고 斷言하지 않을 수 없다.

부엠티온·웃즈協定에 依하여 豫定된 世界平和體制는 두터시 金本位制의 寄食에서 國富를 이루웠는

「大英王冠植民帝國」主宰하는 世界平和秩序」(Pax Britannica)에 代身하여 登場한 「美國領導에 의한 世界秩序」(Pax Americana)였다. 그리고 이新秩序는 諸國의 完全雇傭의 暢達을 爲한 通商의 自由化를 最大の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은 以上과 같이 深刻하며 獨占資本主義의 抗爭은 弗貨對磅貨(Dollar versus Pound)의 對決을 「모델」로 하면서 漸次로 尖銳化하고 있다.

現實의 慢性的인 弗貨不足(dollar shortage)과 諸通貨의 交換性의 不能(inconvertibility of currencies)이라는 環境下에서는 諸國通貨間의 「均衡的換時勢」는 存在하지 않으므로 「根本的不均衡」(unequal balance of payments)만이 現代의 世界經濟의 秩序인 것이다. 「根本的 不均衡」이 不可避하다면 貿易은 數量的으로 統制化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貿易이 統制化될 수밖에 없다면 依例히 이에 換統制가 隨伴하는 것이다. 따라서 失業輸出、技術水準 또는 産業成長率의 高位國等에 對하여 「國內均衡」優先이나, 幼稚産業保護 또는 國防目的等을 爲主하여 「差別待遇」에 依한 諸統制措置를 取할 뿐만 아니라 同時に 二國間双務協定貿易制度(bilateralism)下에서 産業交流가 可能한 國家間에 最大限度로 貿易量을 擴大시키자는 地域主義가 據頭하는 것은 當然한 趨勢일 것이다. 上述한바 軍擴不況下의 世界輸入制限運動 및 關稅引上措置와 이에 따르는 貿易兌換의 管理統制의 強化의 傾向——即 世界的通商制限의 地域別決濟圈의 分化와 그리고 이에 必隨될 報復的·戰鬪的通商戰으로 基因되는 世界通商量의 普遍的縮小과 아울러 世界經濟의 孤立的樊籠化의 可能性 또한 經濟的國民主義의 旗幟下에서 保護貿易政策에 依居하는 現狀은 苛烈한 現實的敎訓을 示唆한다.

以上에서 筆者는 換管理와 換率設定의 問題에 關한 IMF對EOE의 論爭을 契機로 하여 國際經濟上의 理想과 現實의 盲點을 論述하였다. 當面한 現實問題로서 提起하고 싶은 點은 換時勢의 安定이라는 것은 通貨와 物價의 世界的安定이 없이는 定立되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貨幣制度

속에서 保障하는 方策은 當分間 國際金換本位制에의 接近을 試圖하는 選擇의 結果에 資本主義環境下에는 없을것이다。그러나 이것도 充分하지않다。왜냐하면 金의 購買力의 低下는 逐年 表面化한은 만 아니라 美弗貨의 價値조차 漸次로 低減하기때문이다。全美産業會議理事會發表에 依하면 一九五二年末의 一美弗貨의 價値는 一九三九年一月을 基準으로하면 五五・三仙에 不過하며 昨五二年間에도 〇・四%나 減少하였다고 發表하고있다。그뿐만아니라 管理通貨制下的의 資本主義諸國의 通貨는 軟化의 度를 深化하고있다。

世界單一市場崩壞를 背景으로하여 世界經濟에있어서 構造的으로 美國對其他國間에 所謂 國際經濟上の「根本的不均衡」(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普遍化하고 國際的인 生活・所得・物價水準의 差異가 介在하고 國際收支均衡上 慢性的弗貨不足이 支配하는限 換時勢는 永久히 動搖한다。畢竟 우리들은 國內의 物價水準을對「基金」平價의 換時勢에 맞추어 調節하든지(IMF의立場)또는 國內物價水準을 基準으로하여 이에 副應하는 換時勢를 調整하든지(ROE의立場)하는 技術的으로는 적은 範圍의 擇一の解決에 依存할수밖에없다。

前者는 國際經濟의立場이며 後者는 國民經濟의立場이다。그러나 前者의 國際經濟의立場의 領導權이 萬一 美國一國에 依하여 獨占된다면 우리들은 그支配力下에 編入될것이다。外換率을 固定化하고 換管理을 緩和하여 通商을 自由化한다는것은 美國商品과 資本의 海外輸出은 保障하고 弗貨支配下的의 世界市場을 開拓하는 唯一한 方策인것이다。그反面에있어서 後者의 境遇라할지라도 換戰略이 進行되어 換管理에 依히 輸出競争이 再開되면 封鎖的인 世界經濟體制에의 分化를 激成시키므로서 新戰爭의 要因을 醸成할것이다。그러나 通貨價値의 低落을 隱蔽하고「國內均衡」優先의 立場에서 國內經濟計劃을 推進하기爲하여서는 複數外換率의 操作과 通商制約을 約束할수있는 換管理의強化 및 貿易統制가 與

緊한것이다。

그러면 國際主義的理想과 國民主義的現實과의 接着點을 어디서 求하여야 할 것인가 F C E 對 I M F 의 論爭은 陳腐하면서도 恒常 새로운 이 世界的問題의 育點을 또 다시 우리들의 目前에 提起하고 있다。

(一九五三・四・三〇)